

Art & Book Space **집현전**

집 현 전 은 인 천 1 호 헌 책 방 이 다

1대 오태운 선생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즈음 배다리에서 헌책을 팔았다. 이후 1953년 창영학교 근처에 가게를 얻어 인천에서 첫 번째로 헌책방을 내고 상호를 '학생 서림(이후 집현전으로 개명)'으로 걸었다.

2018년 4월 건강상의 이유로 70여년간의 헌책방 운영을 마치게 되면서 인천의 첫 헌책방의 맥을 이어가기를 당시 배다리에서 사진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던 이상봉 대표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이 대표는 3년 여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2021년 5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오태운 선생과 한봉인 사모



집현전 건물의 변화



1948년 12월 배다리



2010년 즈음의 집현전

2018년 영화 '극한직업' 촬영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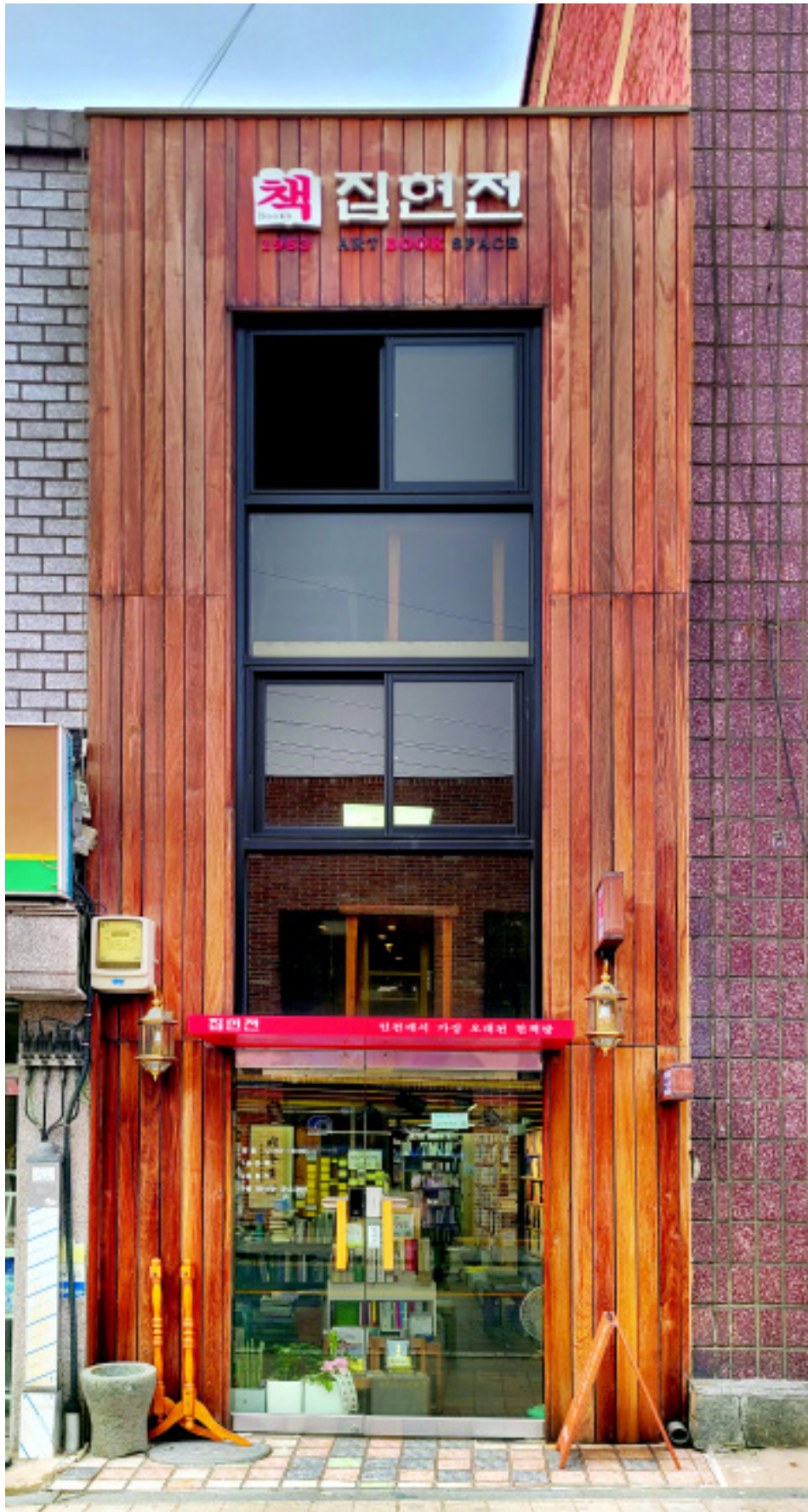
극한직업의 마약사범 아지트 입구





201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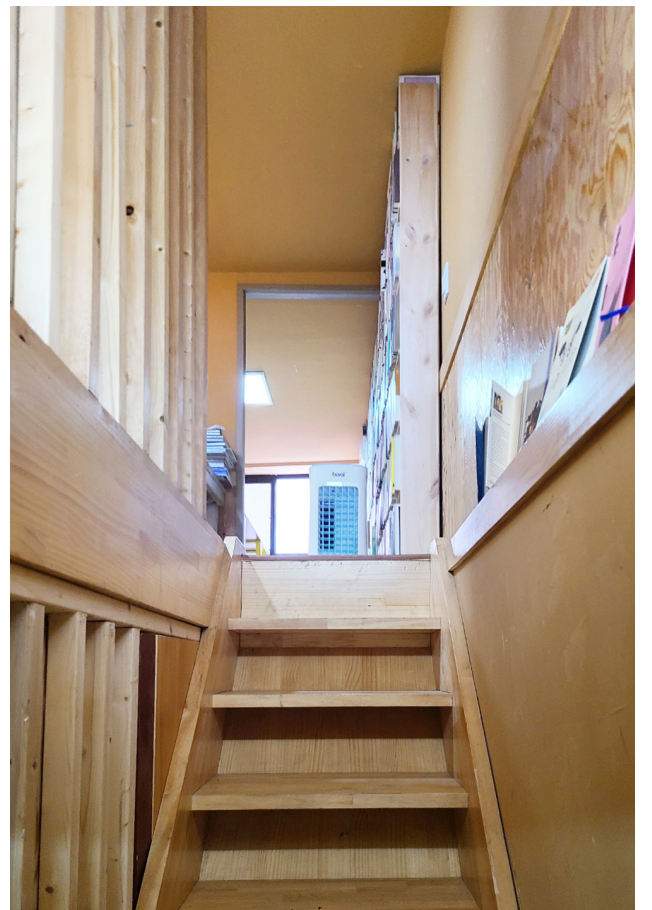
2021년 5월



1층 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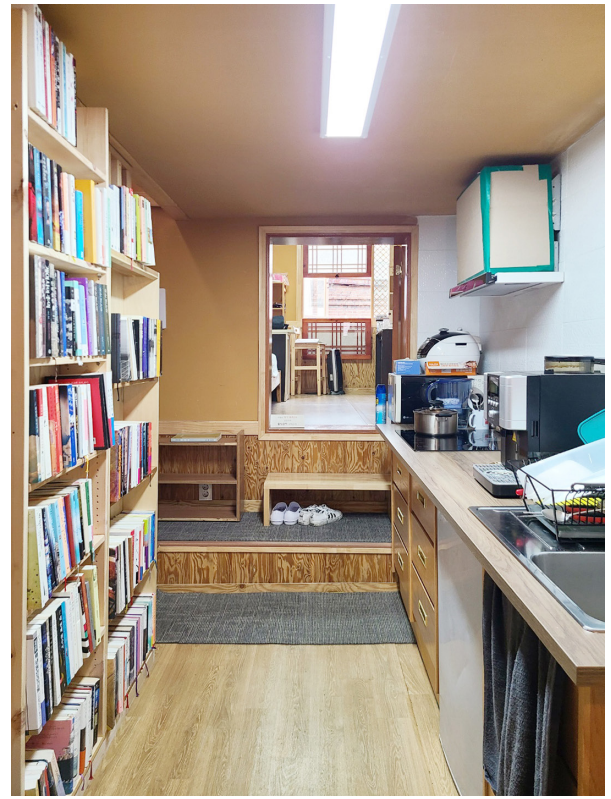
화장실 & 창고

계단





2층 책방



부엌 공간



레지던스 룸

3층 다락방
전시장 강의실 등 다용도 공유공간



인천이야기 특강 '인천을 탐하라'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시각장애인과 예술인의 아카이브 작업 '협동작전'



1기 레지던시 유리나 작가 결과 발표전

집 현 전 2 기 대 표 이 상 봉 은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사이며 사진가로 활동했다. 현직에 있으면서 2012년 배다리에 사진 전문 갤러리 '사진공간 배다리'를 개관하여 전시와 사진 아카데미, 인천 기록사업, 출판 등 인천 지역의 사진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시각장애인 사진 활동을 위하여 '북성동 갤러리'를 만들어 시각장애인 사진활동을 돕고 다양한 사진 작업을 시도하여왔다.

이러한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헌책방 '집현전'을 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책방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특이함 등을 이용하여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맞는 새 공간으로 꾸미고 책과 예술이 함께 접목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 시도하려 노력하여 집현전을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였다.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는 헌책방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의문스럽지만 무엇이든 처음의 시도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해보지 않는 가운데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사건은 만들어 낼 것이라 여기며 긍정적 사고로 시작하고있다.